

개의 黑舌病(Nicotinic Acid 缺乏症)

郭 圭 容

대화가축병원

처음에는 병명을 몰라서 애를 먹었던 축견에 주로 nicotinic acid 를 투약함으로써 회복된 몇 예를 소개코자 한다.

症例 1: Spitz 중, ♂, 7歲, 初診 1975年 2月 26日 2日前 부터 식욕부진과 구토(노란색)에 이어 식욕이 전폐되고 元氣가 없으며, 결막은 충혈, 습윤하고 비강에 혈액이 섞인 콧물과 딱지 부착, 구강에서 악취가 나며 구강점막의 充血과 미란, 혀는 검붉은 색, 복부는 팽만하고 압박하면 통증을 호소함. 체온 38.2°C, 맥박수 127/분, 호흡수 28/분 이었다. 항생제 투여와 수액요법을 실시하였으나 체온 38°C, 맥박수 120/분, 호흡수 35/분 으로 같은 치료를 2日동안 하였으나 치료한 효력은 없이 계속 구토를 하고 식욕을 절체함. 일반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체온은 36.4°C로서 정상 이하로 하강하였으며, 기립불능이었다.

이때 前記한 여러 症狀으로 보아 black tongue 이 아닌가 의심하여 nicotinic acid 150mg 을 1日分으로 하여 5회에 분복케 하였더니 다음날 부터 구토증이 없어지고 식욕과 원기가 호전되어 다시 100mg 을 1日分으로 하여 5회에 分服, 2日間 투약하였더니 완쾌되었다.

症例 2: 잡종, ♂, 3歲, 初診 1975年 12月 9日

극도로 元氣가 없고 식욕전폐, 구강에서 악취가 나고 구강점막의 전면에 노란색의 위막이 덮여 있었으며 혈액이 조금 섞인 침을 흘리고 있었다. 혀는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前例와 같은 경험도 있고 해서 black

tongue 을 의심하고 nicotinic acid 150mg 을 1日分으로 하여 5회에 分服토록 하였더니 分服 4回째 부터 식빵을 먹기 시작하였다. 이때 구강점막의 노란 위막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붉은 색의 미란은 잔존하였으며, 다시 150mg 을 5회에 分服시켰던바 완전히 회복하였다.

症例 3: 발바리, ♂, 2歲, 初診 1977年 1月 10日

개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식욕전폐, 2日間 排糞이 없었다고 한다. 눈은 습윤하고 출혈되어 있었으며, 구강에서 악취가 나고 혈액이 조금 섞인 타액(점조도가 높음)을 물고 있었다. 구강점막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혀는 검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증조수로 구강을 세척하고 penicillin 10萬單位筋注, 「비콤」 2ml 피하주사, nicotinic acid 100mg 을 1日分으로 하여 5회에 分服시켰음. 分服 3回後 빵을 조금 먹었고, 分服 5回後 빵과 우유를 먹었다고 한다. 구강의 악취는 없어졌고, 타액고 물고있지 않았으며 活氣가 되살아났으므로 再次 「비콤」 2ml 를 피하주사하고 nicotinic acid 100mg 을 1日分으로 하여 5회에 分服시켰더니 완전히 회복되었음.

필자의 임상경험으로 미루어 black tongue 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옷점은 ① 구강점막보다 혀가 더 검은 빛을 띠는 점, ② 체온이 정상 이하거나 정상인 점, ③ 추운 계절에 다발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373-45, 602-0512)